

미리넷솔라 이상철 회장 CEO 대상 수상



태양전지 제조기업 미리넷솔라 이상철 회장이 국제경영관리학회가 시상하는 <글로벌 CEO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리넷솔라는 이상철 회장이 산업, 기술,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태양전지의 생산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상철 회장은 “태양전지 기술과 양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경제 성장의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린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수출자원을 확보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데 초석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CEO상은 국제경영관리학회(회장 백권호) 주관으로 2002년부터 국내 우수한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수여돼왔으며 시상식은 10월30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제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화학저널 2009/10/30>